



禮記

| 예기 함께하는 삶에서의 품위있고 예절바른
행위에 대한 기록

| 조민환 교수







예기

함께하는 삶에서의
품위있고 예절바른
행위에 대한 기록

11강. 『예기』 예론의 현대적 의미





Q. 오늘날 **예기**를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예의 범주



개인 및 사회 국가의 정치윤리로 확장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과거 예의 위치와 오늘날 예의 위치



오늘날엔 쉽게 받아드리기 어려운 과거의 예

남녀칠세지남철 (指南鐵) : 남녀 간의 사이가 과거보다 훨씬 가까워 졌다,
또는 남녀가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는다



女子出門，必擁蔽其面。

여 자 출 문 필 용 폐 기 면

여자가 문을 나서면 반드시 그 얼굴을 가려야 한다.

「예기」 「內則(내칙)」



야생파동 임의임의



‘천존지비’와 ‘천고지하’



Q. 예론 및 철학을 다 버려야만 할까?




비판적 계승 이 필요하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는 예가 필요하다



강요되지 않는 예



미국의 공자학자

허버트 핑가레트

예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생동적으로 살려내기 위한 인간 고유의 형식



예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잡질



예의 재해석

“공자가 말한 예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생동적으로 살려내기 위한 인간 고유의 형식이다”



『공자의 철학』

[Confucius : the Secular as Sacred]



**예의
규정**



예는 인간관계를 위한 **고유의 형식**



양호준중 의 예